□동양사상으로 본 환경문제

내가 자연이요, 자연이 곧 나이다

김 항 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가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공해의 문제이다. 날마다 증가하는 폐기물은 고도산업사회로의 전진이 멈추지 않는 한 계속해서 누적될 것이며, 그 결과는 지구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고,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토대인 지구환경이 이렇게 된 것도 하루 아침에 이루워진 것은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고대로부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숙고하였는데, 이는 자연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인간도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고대 희랍의 철인들은 자연에는 어떤 이법(理法) 즉 logos가 존재하는데 이는 인간의 마음에 이성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logos를 자각하여 이와 일치하도록 노력하는데 인간의 이상적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의 전통이 헤레니즘의 전통을 극복하고 희랍과 로마를 석권하면서, 신의 권위는 절대화되었다. 즉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다른 모든 생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으며, 인간들 중에서도 신에 의해 선택된 민족이 모든 다른 이방인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이방인(또는 이교도)의 정복을 위한 모든 전쟁이 합리화되었으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학살행위가 묵인되었다. 이때부터 중세의 교권주의 시대가 개막되었는데, 이 시기에 생활했던 지성인들의 지적활동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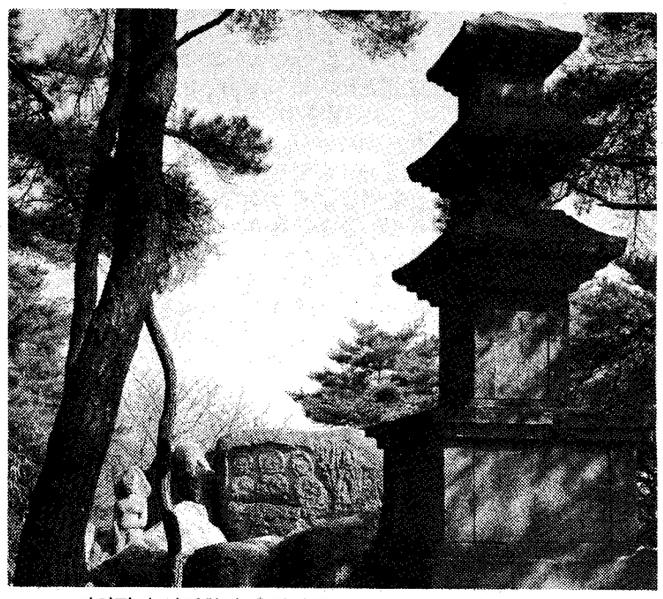
과학에의 무조건적 추종

그러나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성에 근거한 인간의 자유로운 탐구정신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근세에 이르러서는 과학의 권위가 점차 종교적 권위를 침식하기 시작하였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가 오히려 종교적 권위를 앞지르고 있는 듯한 감도 없지 않다. 그래서 마침내 과학적 방법은 모든 인문과학적 탐구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가치영역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이르러 자연은 더 이상 숭고한 삶의 터전이거나 모든 생명의 원천일 수 없고, 다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시험되고 파헤쳐져야 할 대상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들은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조작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인간 자신조차도,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최대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작하려는 시도조차 진행되고 있다.

물론 사려깊은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런 추세를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볼 때 서양이 주도한 문명은 두가지 극단을 치달려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나친 신중심의 문화요, 다른 하나는 지나친 인간중심의 문명이다. 여기서 인간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심에 대한 강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조화롭고 이상적인 인간의 삶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삼의 길이 요청된다.

자연 본질 인간속에 내재

그러면 동양사상에는 과연 이런 요청에 부응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하늘과 사람 그리고 만물이 어떻게 조화통일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였다. 그래서 중용(사서의 하나)에서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라고 한다. 즉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명'(命)은 부여한다는 뜻과 '천'(天)자신이 지닌 이법(理法)이란 뜻, 또는 천 즉 자연이 지닌 본질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연이 지닌 이법과 생명의 본질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의 생명은 음과 양의 형식과 기(氣)를 통해서 만물을 쉬지않고 생성한다. 이처럼 끊임없는 생성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아 이를 '선'이라 하며, 또한 자연에 의해 생성된 자들의 본성 속에도 이 생성의 능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일음일양지위자 계지자선야 성지자성야'(一陰一陽之謂者 繼之者善也 城之者性也)라고 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을 좋아하는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경관을 중요시한다

우주생명을 포함하는 개체

이처럼 순수자연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만물의 생성은 결코 단절되거나 막힌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면 다른 사람의 본성도 실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만물의 본성도 실현시킬 수 있으니 이렇게 되면 우주 대자연의 생명활동을 도와서 그와 일치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양사상에 의하면 '나'와 '남' 그리고 '만물'이 도(道) 즉 우주생명 속에서 서로 통하여 막힘이 없으니, 한 개체가 자기 본성을 실현하면 모든 존재가 동시에 자기를 실현하게 된다. 이는 우주생명(진리 생명 또는 순수존재)의 본질이 하나하나의 개체 속에 남김없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의 본질이 하나하나의 개체 속에 보다 함축되어 있으니, 전체가 곧 하나이고, 이것을 뒤집어 보면, 개체가 곧 전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자는 '천지가 나와 함께 살고 만물이 나와 한 몸이다.'라고 한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하나 가운데 일절 있고, 일절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일절요, 일절이 곧 하나'라고 한다. 이에 이르러 자연과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일 수 없고, 도적생명(道的生命) 속에서 원융무애(圓融無碍)하게 조화통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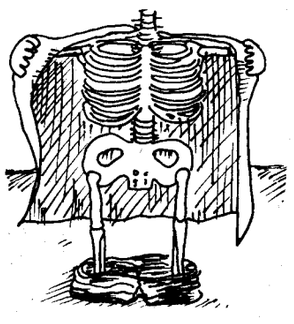
우리들이 선각자들의 이런 깨달음의 발언을 믿고, 우리의 의식을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면 모든 환경문제와 문명의 위기는 초극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자연은 인간 욕구 충족 위한 도구
인간과 만물의 조화통일 고려돼야

세 시 봉

'보여줄 게 없어 죄송합니다'

김동욱 논설부장



요즘 벗는 광고가 유행한다. 무슨 장사를 하던 심지어 휘발유 장사를 해도 일단은 벗고 봐야 한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상품이미지와 관련해 구매자의 기억 속에 깊이 뿌리를 박자는 술수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벗어서 볼 것이 있어야 씨알이 먹힌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데 벗으라고 하면 보는 사람은 매우 안타깝고 벗는 이도 매우 송구스러울 것이다.

'궁금하시겠지만 도대체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쇼프로그램 코미디언이 하는 말이 아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민족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대통령이 한 말이다. 도대체가 92년 선거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도대체 보여줄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을 한다. 92년 선거때 선거비용을 법정비용 이상을 초과했음을 시인하며 국민들에게 '벗기면 무엇이 나올까?'하고 강한 궁금증을 만들어주더니 이제는 뻥튀기마냥 까보면 텅 비었다며 송구스럽다는 말을 한다.

"대선자금규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를 했다는 흔적도 없이 그런 변명으로 이를 호도해 넘기려하는 청와대 측의 태도는 국민의 납득을 받을 수 없다."

자민련측이 이번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련발표에 대해 냈던 성명의 일부분이다. 말 그대로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다. 또한 여권 대선주자 한 명도 청문회를 열든지 국정조사를 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극구 주장한다. 절대 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또다시 대통령의 측근 이 고문은 말한다. '대선자금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다치면 혼자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마디 하길 '한보부도 이후 흔들리는 기업에 다시금 강풍을 불고싶지 않고 자칫 나라 전체가 흔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이런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최근 김현철씨의 구속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도 많이 발전했을을 실감케 한다. 5공, 6공 때였다면 김현철 같은 위인은 결코 쇠고랑은 차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정치발전의 모습을 보길 원한다. 시원시원히 털어놓고 잘못이 있다면 임기중에도 쇠고랑을 찰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국민의 혼돈은 국민 스스로가 컨트롤 할 수 있다. 우리민족은 일제시대, 6·25를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강한 민족이 아닌가.

□세종대왕 탄신 6백주년을 맞아 -2. 한국어 교육

한글을 세계어로, 세종대왕을 국제인으로

김 중 섭
〈언어교육연구원 국어학 교수〉

지난 5월 17일에는 우리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모임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의 정례발표회가 열렸다. 주요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의 1백여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동안 이 행사는 특정대학에서만 이루어졌던 일로 그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하겠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시작된 우리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변화와 세계무역 13위 경제 성장에 힘입어 우리말도 세계 주요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50여개국의 2백80여개의 대학에서 한국어과나 한국학 센터에서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수는 5백50만명이 넘어 이들에 대한 우리말 교육도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들의 우리말 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요즘 세계화의 바람에 힘입어 우리사회는 외국어 바람이 거세게 분다. 외국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기는 어쩌면 우리말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우리학교를 비롯하여 서울대, 연대, 고대 등 몇개 대학에서만 실시되어 왔다. 우리학교만 보면 1993년부터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 자비, 교환, 정부초청 장학생을 포함하여 20여개국의 1백명이 넘는다. 다행스러운 것은 점차 지방대학 등에서도 한국어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 등의 우리말 보급을 위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의 중심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하여야 할 일들이 많다. 그중에서 중요한 일을 살펴보면 학습자 모국어에 맞는 교재 개발 연구와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 양성과 이들을 교육할 전문기관 설립,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갖춘 한국어 교육기관등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 관련 교육기관간의 유대감과 협력 등은 한국어 세계화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동요 중에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랫말처럼 우리도 한국이라는 우리집에 온 외국인에게 한국어라는 꽃을 어떻게 주어서 보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어교육 전문가 몇 사람에 의해서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요사이 우리학교 언어교육연구원에 걸려있는 세종대왕의 영정을 보면 입가에 미소를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멀지않아 세종대왕이 활짝 웃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말을 바로 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것이 우리말을 세계의 중심어로 우뚝 서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학술단신

물리교육 초청강연

서울대는 오는 5월 26일 17시부터 18시 반까지 '물리교육의 탄생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유경호(물리교육학) 명예교수를 초청해 사범대 시청각 교육실(9동 212호)에서 강연을 개최한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기쁜 소식 선교회 주최로 서울대는 매주 화요일 18시 사회대 106호(16동)에서 정동석 (서울약대 81, 대학원 85) 전도사를 초청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란 주제로 강의를 연다.

숭실대학교 대학원 학술제

숭실대 대학원 학생회는 한국대학원대표자 협의회의 후원으로 세미나를 주최한다.

장소는 숭실대 별관 511호.

일시	주 제	시간	강사
5월28일	5철학〈Monad론과 라이프니쯔 철학 의 원리〉	15~18시 까지	윤선구(독일 쾰른대 철학박사)
5월28일	사회사업〈학교사회사업〉	10~12시까지	노혜련(숭실대 교수)
5월29일	〈한국에서의 근대적 사회복지전개와 발전과정〉	16시30분~18시까지	최균(한림대 교수)

고전원전 무료강의

서울대는 5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5월 한달 간 7동 201호에서 고전원전을 무료로 강의한다.

김지수(서울대 박사, 천인 대동서당 훈장)이 초청된 이번 강좌는 종교철학 연구회(천인 대동 서당)가 주최한다.

문의는 02)886-3009

YBM 시사영어사 어학 학원
개강 6월2일

본원 프로그램

영어·일어·중국어
● 엘리트 종합 TOEIC ● 안박사 TOEIC ● TOEIC L/C ● TOEIC R/C ● 단계별 공략 ● 아카데미 TOEFL ● 신경향 TOEFL ● TOEFL L/C ● 영어 순해 ● 기초 L/C ● AFKN 청취
● VOCABULARY ● 영작문 ● 영어실력기초 ● Communicate 회화 ● Interchange 회화 ● Side by Side 회화 ● 편입 영어 ● 일본어 문법·독해 ● 일본인 일어회화 ● 중국어 문법·회화 ● 주말 특별 과정

미국인 영어회화 과정(YEC)
● 정 원 제 ● Level Test후 반편성 ● 강사진 전원 Native Speakers ● 본 학원에서 개발한 최신교재 사용

본원
낙원동 종로2가 탑골공원 YBM시사영어사 동대문 본원
(02)276-0509

영 어 ELS 일 본 어

CONVERSATION
Native Speakers에 의한 영어회화 집중과정, 철저한 Level 및 학사관리로 체계적 실력향상 기초에서 고급까지 단계별 수강, Level Test에 의한 반편성
●1일 2시간 주 5일 ●1일 1시간 주 5일

INTENSIVE, SEMI-INTENSIVE
회화, 작문, 문법, 청취의 전문야를 매일 반복 교육으로 단기에 완성하는 집중영어강좌 전과정 수료시 ELS 수료증 발급
●1일 6시간 주 5일 ●1일 3시간 주 5일

TOEIC
내·외국인 강사에 의한 집중 교육 L/C와 R/C 및 실전 모의 문제풀이
●1일 2시간 주 5일 (L/C, R/C 각 1시간)
●안박사 TOEIC ●엘리트 TOEIC

TOEFL
고득점을 목표로 다양한 실전문제 및 최신 교재로 집중 반복 교육
●1일 3시간 주 5일 (L/C, R/C STRUCTURE 각 1시간)
●TOEIC L/C ●AFKN 청취

KAPLAN
해외유학생 대상 SAT·TOEFL
● 개강 : 6월 16일(8주 과정) ● 문의 : 역삼 ELS·신촌 ELS

일본어 집중과정
● 1일 4시간 주 5일 6단계 -유학준비 및 각종 시험 대비를 위한 종합 일본어 코스 ● 한국인·일본인 강사

일본인 회화
● 1일 2시간 주 5일 12개월 과정 ● 배치고사에 의한 정확한 반편성과 일본어만으로 진행되는 수업방식 ● 일본인 강사

기초 일본어
● 1일 2시간 주5일 3개월 과정 ●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초보자 대상의 문법·회화 동시 완성과정

JPT 대비반
● 1일 1시간/500점, 700과정 ● 청취와 독해의 효율적인 공략을 위해 제작된 교재사용.

종로 종각 탑골공원 ELS종로 YBM시사영어사 빌딩 신관4층 (02)278-0509
강남 교대 한남대교 ELS강남 양재 강남역 8번출구 육화예식장 뒤 (02)565-0509
신촌 동교동 연대 ELS신촌 창전동 서강대 시청 (02)323-0509
역삼 교대 한남대교 강남역 2번출구 양재 ELS역삼 (02)554-0509
인천 제물포 만송빌딩 ELS인천 인천 시민회관 주안역 간석동 교보빌딩 (032)865-0509
대전 둔산 대전역 충청은행 동양백화점 ELS대전 한밭B/D 한일은행 시청/도청 충무체육관 (042)222-0509
대구 ELS대구 동대구역 범어사거리 수성못 (053)743-0509
부산초량 중앙동 부산역 중앙회관 ELS부산 서면 홍국생명 (051)464-0509
부산서면 영광도서 가야 초읍 LOTTE백화점 ELS서면 양정 전포동 동보서적 태화쇼핑 (051)809-0509
광주 전남여고 ELS광주 동부경찰서 (062)234-0509
6월 OPEN ELS동래 등록 접수중! 부산대학교 ELS동래 온천장 장전동 부산대학 지하철역 (051)513-0509
7월 OPEN 예정 ELS영등포 영등포 시장 경방필 신세계 ELS영등포 구로 여의도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YBM 시사영어사는 국내 최대의 학원 그룹을 거느린 영어전문 출판사 입니다. | 국내 : ●YBM 시사영어사어학학원 ELS 13개 ●ECC E2 어린이 영어교실 141개 ●PSA 1개 ●외국인 강사 800명 국외 : ●미국 6개 Cerritos/Los Angeles/Diamond Bar/Torrance/New Jersey/New York ●캐나다 2개 Vancouver/Toronto
YBM 시사영어사 부설 시사유학개발원 | 해외유학은… 종로 : 273-9671, 강남 : 3452-9671